

숨 쉬는게 잘못인가요?

경기 아인 초등학교

5학년 2반 박지민

철수라는 가수 지망생이 있었다. 철수는 어렸을 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극찬을 받은 노래천재였다. 그 뿐만 아니라 탁월한 춤과 특유의 랩으로 많은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설 새 없이 연습하고, 안되면 될 때까지 피눈물 나게 노력했다. 먹고 싶은 케이크를 참으며, 졸음을 참으며 연습했다. 몸에 안좋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비염과 천식이 있다고 했다. 다음주가 오디션 결승인데, 최소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가에게 손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철수가 병에 걸린 이유는 다름이 아닌 '미세먼지'때문이었다. 숨을 쉬는게 잘못된 것인가?

작년, 학급임원끼리 모여 캠페인을 했다. 졸음을 포기하면서 아침마다 포스터도 만들고, 연습했지만 캠페인 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캠페인을 취소시켰다. 정말 짜증났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손 자주 씻고, 물 자주 마시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도 걸어다니지 않는다.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옷을 헹궈서 댚을 생각만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안좋을 때, 대부분 마스크를 쓸 생각만 하지, 오늘 회사를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도망가려고만 하고, 어느 누구도 소화기 핀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포스터에도 질병에 걸리지 않을 방법밖에 없다.

우리 하나하나가 노력한다면 언젠가 미세먼지가 ' 좋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물 한 컵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철수처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미세먼지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 때문에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알다시피 숨을 쉬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 죽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숨을 쉬어서 죽는다. 숨을 참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어서 죽는 것이다. 숨을 쉬는 것이 죄일까? 한 명 한 명이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최소 철수 같은 아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일 뉴스에 "오늘도 역시 매우 좋음입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노력해야겠다. 물론 여러분도 같이!!